

# 괴롭힘 동영상·유서 남기고... '학폭 고통' 고교생의 죽음

### 기말고사 둘째 날 극단 선택... "쉬는 시간 샌드백치듯 폭행" 증언도 유족, 수사 의뢰...광산경찰 7일 같은 학년 학생들 전수조사하기로 학교측 "작년 실태조사 때 피해호소 없어"...지속적 폭력 파악 못해

광주지역 고교생이 또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 7일 같은 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반고에 다니는 A(17)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교 2학년생인 A군은 이날 이틀째 치러지는 기말고

사를 보기 위해 오전에 집을 나섰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남긴 파일 형식의 유서와 동영상에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던 A군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A군은 유서에 '학교폭력으로 힘들지만 너희들 도움으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친구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적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동영상은 A군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괴롭힘 동영상과 유사한 형태로,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이를 빗자한 괴롭힘에 시달리는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A군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면서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지난 28일에도 교실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말고사 첫날, 일부 과목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끼리 채점을 하고 있는데 교실로 찾아온 학생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들 증언이 나온 상태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등교일이 많지 않은데도, 등교하는 날이면 쉬는시간에 A군에

게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샌드백치듯 때렸다'는 말도 나왔다. 가해 학생들로 지목되는 아이들의 경우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A군에 대한 폭력이 오랜 기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A군 부모는 즉각 경찰에 자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학교측 관계자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중이다. 일각에서는 A군 증언 및 학생 증언 등을 감안하면 학교측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담임교사와 해당 학년 수업 교사들이 A군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A군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학교 폭력

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난해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받기 조사해야 하지만 일부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해 참고인 조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9만 9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A군이 다니던 고교의 경우 응답학생 576명 중 단 한 명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하지 않아 조사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 팝업스토어 생겼어요 광주 광산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한디점방'의 개소식 축하공연이 4일 광주 광산구 송정역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디점방의 이번 특별판매전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소극적인 전남도 조례·규칙·매뉴얼 등 대책 마련 안해

### '직장갑질119' 분석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침에도, 전남도는 갑질 예방·근절을 위한 조례·규칙·매뉴얼 등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각 지자체의 조례 등 지침 제정과 근절 대책 수립 여부, 신고센터 운영, 전담 직원 배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 항목을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남은 조례·규칙·매뉴얼 어느 하나 만든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뿐 아니라 대전·강원·경북도 비슷했다는 게 직장갑질 119측 분석이다. 조례·규칙·매뉴얼을 모두 제정한 곳은 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곳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근절대책마련은 커녕 직장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규칙·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의 경우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등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의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

연한 법인의 임직원, 시에 파견 근무 중인 타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 광주시청 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광주·경기·전북은 '미흡' (황색) 점수를, 전남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부족' (적색) 점수를 받았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3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고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2건씩을 접수한 인천·광주·강원·울산을 비롯해 11개 지자체는 5개 이하의 신고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법적 근거도 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누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신고하겠나"라며 "정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를 하는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관리직인데 현장업무까지...업무협약 중 쓰러져 숨져 산재 아니라고? ...항소심은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입사, 도정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리직이지만 때로는 원로 상·하차, 지게차 작업까지 했고 회사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퇴근, 창고 청소 등 노무직 업무도 맡았다. 2018년에는 경리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도 병행했다.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이들 회사를 오가며 일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회사에 출근한 뒤 가공 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찾아 업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2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우선,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여러 회사를 오가며 일한 사실을 들었다. 관리직이지만 현장 도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먼지, 벌레 썩는 냄새 등으로 피부병, 두통, 어지러움 등을 가족에게 호소한 정황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을 동반한 노동 업무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A씨의 발병 무렵 실제 근무시간도 주당 44시간을 넘겨 평균 54시간에 가까운 점, 사업주 요청으로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체납 보험료·임금 등으로 인한 불안·스트레스에도 시달린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 전두환 항소심 재판 피고인 없이 꺾석재판으로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나오지 않는데 따라 피고인 없이 꺾

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65석) 중 33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재판 시작 전 선착순 제공할 계획이다. 선착순 배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동 201호 입구에서 진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